

2011 치킨 페스티벌 개최

▶▶ 오는 4월 14일~16일까지 코엑스에서



본회는 '다양하게 맛보고 즐기는 우리 닭고기'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3일간 코엑스 1층 B홀(구 인도양홀)에서 '2011 치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2011 치킨 페스티벌'은

국내 계육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계육관련 전문 전시회로 닭고기 전문업체, 치킨 프랜차이즈, 닭요리 전문점, 닭고기 관련 제품, 소스 등 관련 식품 및 조리기구와 설비 등 계육 관련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의 활성화와 참가업체의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최적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성공하는 치킨점 창업하기 및 소셜커머스를 접목한 치킨점 온라인 홍보 등을 주제로 한 창업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참가기업이 직접 자사의 성공사례 발표 등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제공은 물론 예비 창업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상담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산 닭고기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는 물론 닭고기가 웰빙 건강식 문화의 대표 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리 및 소비방법을 소개하여 선진국형 육류 소비 패턴으로 전환되는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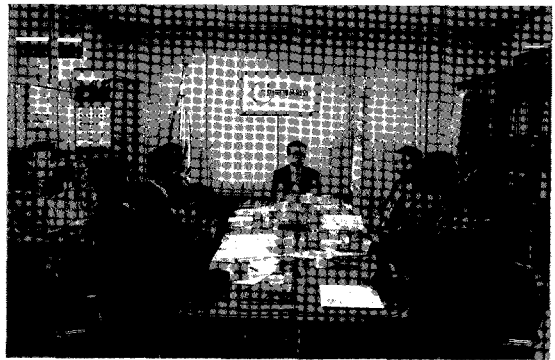
이를 위해 '2011 치킨 페스티벌'은 닭사랑 UCC 공모전, 사진 콘테스트, 팔색닭 레시피 콘테스트,

다문화 가정 초청 닭요리 세계여행, 홈쿠킹 웰빙 닭요리 강좌, 현장 닭요리체험 나도 셰프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에게 관람 재미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 홈페이지 : www.chickenfestival.co.kr

제1차 이사회 개최

▶▶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등 심의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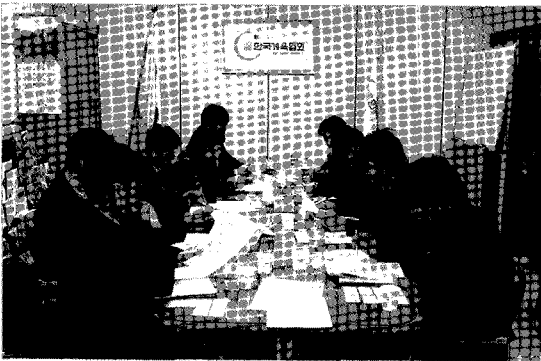
본회는 지난 3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갖고,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비 등 미수금 결손처리 승인(안),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 및 회비분담액(안),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본회 임시 대의원 총회를 오는 4월 20일 개최기로 하고, 농가 대의원을 4월 10일까지 선출기로 했다.

2011 치킨 페스티벌 실무자회의 개최

▶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3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1 치킨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 치킨 페스티벌 행사 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각 회원사의 참여 여부 및 부스 위치 선정, 시식 및 이벤트 진행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농가 대의원 선발 요청

▶ 오는 4월 10일까지 협회로 제출

본회는 지난 3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오는 4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농가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회원사에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농가 대의원을 선출, 본회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회원사에서는 기 발송된 공문에 기재된 양식에 맞게 각 회원사 별 대의원 수를 본회로 통보해야 한다.

조선일보 “KFC에 닭다리밖에 없는 이유는...” 보도

▶ 언론사에 해명자료 배포

본회는 지난 3월 16일자 조선일보 “KFC에 닭다리밖에 없는 이유는...” 제목의 보도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주요 일간지 및 전문지에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내용〉

□ 고기로 쓰는 닭은 성장기간이 6~8주가 걸려 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더라도 4월말 이후에나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명 내용〉

□ 고기로 쓰는 닭의 성장기간은 통상 5주 이내이며 계절에 따라 2~3일 정도 당겨지거나 늦어지기도 한다. 산지 수급상황을 볼 때 4월초부터는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사유는 먼저 올초 극심했던 한파로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출하량이 감소했고, 시 발생 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입추가 통제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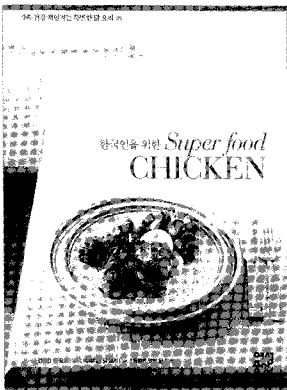
▶ 총 10여개 안 제출

본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규제 및 제도의 미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육계 및 계육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조금 대의원의 선거권자 (축산업자) 기준 제시, ▲식용란 판매 관련 식용란 기준의 완화, ▲포장의무화가 적용되는 닭·오리고기 해포판매 금지,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의 개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개선, ▲중량단위 가격 표시 제도 도입, ▲가축운송 분야 외국인 고용특례 적용, ▲가금부문 농장신축 관련 각 지방의 조례 개선, ▲축사시설 현대화 정책자금 담보 대출규정 완화, ▲경기도의 G마크 인증 및 사용자 지원금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건의서를 지난 3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닭고기 요리책자 제작

▶ 여성중앙 4월호 별책부록으로 진행



본회는 오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Hall B1)에서 개최될 '2011' 치킨 페스티벌'과 닭고기 소비 성수기에 맞춰 여성중앙과 공동으로 '한국인을 위한 Super food, CHICKEN' 요리책자를 제작, 회원사에 배포했다.

이번 요리책자는 건강한 닭요리, 예뻐지는 닭요리, 특별한 맛의 닭요리 등 3가지 컨셉에 맞는 닭

고기 요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닭 한 마리 영양 정보, 닭고기 고르기&신선 보관법, 닭과 어울리는 재료, 닭냄새 없애기&육수내기, 닭고기 부위별 특징과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본 요리 책자는 여성중앙 4월호 별책부록으로 수록돼 소비자들을 만나게 된다.

'식육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안 입법예고

▶ 회원사에 의견조회 공문 발송

본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3월 23일 발표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안과 관련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오는 4월 12일(금)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사유)을 본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 농림수산식품부에 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 3월 14일 최인기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는 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공개하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농장 등 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자나 차량의 출입 내용을 기록·보존하되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월 15일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등으로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매몰 토지에 대해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에 위해를 미치거나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시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 매몰지에 대한 발굴 및 사용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 다음 -

개정안	검토의견	비고
제17조의 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무분별한 기록 확인은 도리어 질병전파의 우려가 있으며, 기록보존은 문제 발생시 역학 조사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보존기간을 "3개월"로 수정 필요	최인기 의원 대표 발의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와 연계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신속한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필요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아울러 아직도 야생조류에서도 지속적으로 항체가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여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이동제한 해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전남 영암지역(2011. 1. 7, 1. 9, 1. 11, 1. 13, 1. 23, 가금 9건)
- 충남 천안·아산지역(2011. 1. 17, 1. 19, 1. 25, 가금 3건, 2011. 1. 25일 경기 평택지역 AI 발생에 따라 충남도내 설정된 이동제한 포함)
- 경기 평택지역(2011. 1. 25, 가금 1건)
- 울산 울주지역(2011. 2. 3, 야생조류)
- 경기 동두천지역(2011. 2. 11, 가금 1건)
- 경남 양산지역(2011. 2. 24, 가금 1건)
- 경기 화성지역(2011. 2. 10, 가금 1건)
- 경기 남양주·양평지역(2011. 2. 1, 야생조류 1건)
- 경기 평택지역(2011. 2. 7, 가금 1건), 화성지역(2011. 2. 13, 야생조류 1건) 및 안성지역(2011. 1. 11, 가금 1건)
- 경북 성주지역(2011. 2. 24,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이동제한 해제 알림

▶ 경기, 충남, 경북, 전남 등

본회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음과 같은 지역의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해 이 같은 사항을 회원사에 통보했다.

청정(Clean) 축산 운동 연계

▶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알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과 AI 발생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감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도약 계기 마련을 위해 축산농가, 관련업계 및 종사자, 유관단체 및 행정

